

소설 '심청전'에 대한 복식 연구 II - 여자 복식을 중심으로 -

김문자[†] · 이수정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Costume in Classical Novel 'Shimchungjun' II - Focusing on the Woman's Costume -

Moon-Ja Kim[†] and Soo-Jung Le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Suwon University

Dept. of Major in Education of Home Economic, Suwon University

(2004. 3. 23. 접수; 2004. 5.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viewing and researching the symbolic meaning and classifying the types of the style of the Costume in classical novel 'Shimchungjun' focusing on the woman's costume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tombs bequests. Titled ladies for royal family put on 'Wooimkyoryong' and 'Sungun' as a petticoat when the ladies of Song period rode on horses. The underskirt played a part to swell a skirt for ladies.

'Bakjueui' and 'Hwangsang' were ordinary clothes ranging from ladies of loyal family to women. The red color was limited to royal family.

The ordinary clothes of women were white ramie clothes commonly and floral patterned clothes were prohibited to the ordinary clothes for women.

'Ko', a breast-tie (breast ribbon) of a Korean coat, was made of silk and women wear as an outer garment. The common people will wear 'Ko' of white ramie clothes which was very active items.

The ladies of royal family and women put on shoes made of white ramie clothes, but the full dress of queen wore blue boots made of leather.

The noble women wore 'Suk'(boots) made of deer skin and common people wore straw shoes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Sometimes they wore 'Woopihye' made of cowhide.

In the first of Koryo era, the styles of dress were consisted of 'Monso', 'Eui', 'Po', 'Dae', 'Koh', 'Sang', 'Sungkun' and 'Kangnang'. The structure of costume for women made little difference and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with decoration.

Key words: Koryo(고려), Bakjueui(백저의), Wooimkyoryong(우임교령), Hwangsang(황상), Sungun(선군).

I. 序 論

소설 '심청전'에 대한 복식 연구 I 에서 이미 밝혔
듯이 지금까지의 소설 「심청전」의 복식은 주로 조선

[†] 교신저자 E-mail : mjkim@suwon.ac.kr

시대 복식으로 표현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나 소설속 시대 배경은 고려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청전』 등장인물들 특히 여자복식에 대한 정확한 복식 고증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고려시대가 복식사의 공백기라고 한 정도로 복식에 관한 유물이나 문헌이 적어 고려복식의 형태를 알기 어려운 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청전』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고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 복식의 개괄적인 고찰에 대한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심청전은 그 내용의 구성상 용궁이라든가 하는 특수한 상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물들의 복식 구현도 필요하므로 더욱더 복식고증에 어려움이 있나 하겠다.

연구 목적은 '심청전'을 극화하는 관점에서 각 등장인물들 중 여자복식의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며, 전반기 고려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재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 방법은 '심청전' 등장인물들중 여자복식을 살펴보기 위해 『高麗圖經』의 복식 기록과 그 시대의 현실상황을 토대로 그려졌을 고려시대 인물관련 제작 불화 및 출토 고분벽화 인물상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상황설명 및 배경설정을 통해 재현하기로 한다.

연구범위는 심청전의 등장인물중 심청, 장승부인, 락씨부인, 궁녀, 뽕덕어미 등의 여자복식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고증하였다.

II. 小說「沈清傳」女子登場人物을 통한 高麗服飾의 考察

고려시대 여자복식도 남자 복식과 같이 身分階級 制度에 따라 王妃服·貴族女服·庶民女服 등으로 구별되어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복식이 중국의 복식과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복식의 이중 구조 속에서 변천해 오는 가운데, 남자복식에 비해 그다지 많은 계급

구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고수해 온 것 중의 하나가 여자복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服飾은 階級的인 面에서 上向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一般 庶民層에서도 上流階級을 좇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 못할 것이다. 다만 下庶民의 服飾은 貧困과 까다로운 禁制에 의하여 이의 發展을 阻害당했을 뿐이다.

심청전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 관계로 그 줄거리¹⁾는 생략하고 소설속 여자 등장인물들중, 심청, 장승부인, 락씨부인(심청 어미), 궁녀, 뽕덕어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용궁속 수정궁의 궁녀 등 상상의 인물 복식은 고려 불화 등을 통해 고증했으며, 등장인물의 복식은 고려시대 복식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 도판이나 古記錄 등을 참고로 했으며, 실제 스타일화로 표현된 것은 이중, 장승부인의 평상복과 외출복, 락씨부인의 옷, 궁녀복, 뽕덕어미옷, 황후가 된 심청과 친자의 예복 등이다.

등장인물들의 복식 고증은 먼저 고려시대 前期의 복식을 기술하고 있는 『高麗圖經』에 기록된 복식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시대의 佛畫나 遺物 등을 참고하여 그에 따르는 스타일화로 복식 고증을 하였다.

1. 심청의 복식

1) 심청의 평상복

심청의 평상복은 고려시대 전반기의 대부분의 서민녀들의 평상복의 형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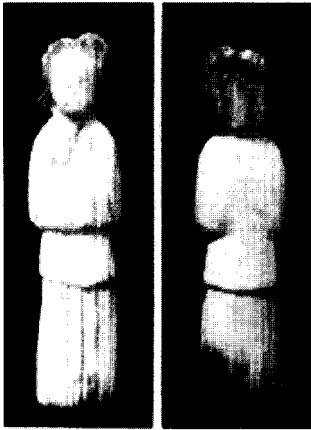
당시 미혼녀는 머리를 묶고 나머지는 늘어뜨리는 데 여자는 흉라로 묶었다²⁾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 대부분의 여자 치마, 저고리 차림은 통일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두가지 착장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자 목우상(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치마위에 저고리를 입은 우리 전통적인 차림 방법이다.

1) 고전문학사실 편, 한국고전소설해제집 上 (서울: 보고사, 1997), pp. 53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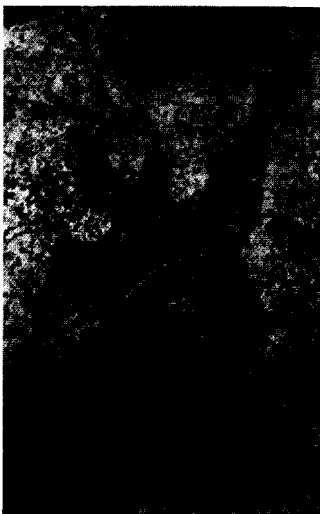
2) 『高麗圖經』 第20卷, 女子 庶民之家 女子未嫁 紅羅束髮 其餘被下 男子亦然 黑繩耳.



〈그림 1〉 여자 목우상.
(한국복식문화사, p. 171)

또 다른 하나는 기창 둔마리 고분벽화 속의 여인상(그림 2)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襦를 裳 안에 넣어 입고, 허리를 여빈 형태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허리의 끈은 裳에 달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裳을 여기기 위한 帶를 착용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넉넉한 裳에 비해 허리선이 밀착된 襦를 볼 수가 있는데, 양 소매의 폭은 보더라도 廣袖가 아닌 窄袖의 형태로 당시의 민서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심청의 평상복도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착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2〉 둔마리 고분벽화 여자상.
(한국미술전집, 4 p.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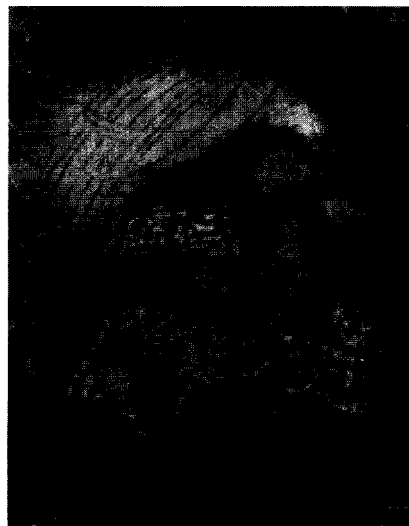
2) 심청의 외출복

서민층이란 원래 복식이나 수식 등을 많이 가질 수가 없었으므로 제한도 많았고 별다른 특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층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심청에게 외출복이 따로 있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거나 다만 치마 저고리 차림 위에 백저포를 입고 허리에는 수식이 없는 거친 포로 만든 鞞을 띠고, 草履를 신었으리라 생각된다.

두식은 前記한 바와 같이 미혼녀이므로 홍색 비단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었을 수 있으나 극중 심청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심청이 긴 머리를 한 것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외출시 귀찮없이 몽수를 썼으나, 심청의 어린 나이와 빈곤을 감안할 때 이 몽수를 반드시 쓰고 외출했으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3) 인당수에 빠질 적의 심청

재물로 바쳐질 심청을 위해 뱃사람들이 옷을 마련하여 준다. 이 때 심청이 소복을 착용했다고 여겨지는데, 喪服에 관한 기록이 없으나 「彌勒下生經變相圖」의 상을 치르고 있는 듯한 인물상(그림 3)을 보면 소색의 마지와 백지의의를 입고 가슴부분에서 띠를 맨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당수에 빠질 때의 심청 또한 민서녀의 白苧衣와 袴, 裳의 형태 복식인 소복에 버선만을 착용했으리라고 본다.



〈그림 3〉 彌勒下生經變相圖 민서녀복.
(고려시대의 불화, p. 139)

4)天子와의 결혼식에서의 심청의 大禮服

초기의 왕비복은 宋의 后妃冠服인 大紅衣였다. 대홍의는 붉은 비단에 금은색사로 수를 놓은 화려한 옷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자세한 모양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당시 송제의 적의제도(그림 4)를 통해 고려 초기의 왕비복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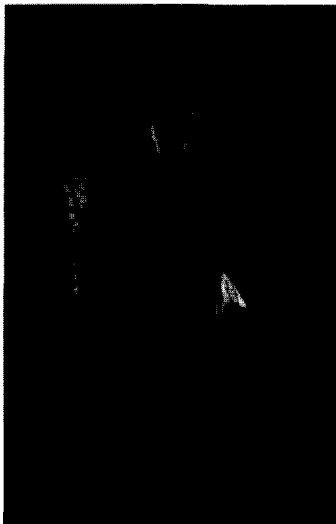
『高麗史』 輿服志에서 당시 賜與된 中宮冠服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관에는 7마리의 翟(雉屬)와 두 鳳花를 장식하였으며, 여기에 9가지(樹)의 작은 꽃과 또한 9가지의 큰 꽃을 수식한 비녀를 꽂았고, 양쪽 귀밑머리에는 9釧을 수식하였다. 이것을 七翟冠(實은 七翟二鳳冠)이라고 하였다.

翟衣는 外衣로 青色 바탕에 9줄로 등분하여 가지런히 꿰를 繼 놓았다.

중단은 소사 즉 백사로 하고, 깃에 수분을 놓았으며, 홍라로 선을 하였고, 적의 안에 입었다.

蔽膝은 裝色과 같은 색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아청색³⁾(靑色)으로 선을 둘렀고 이등분하여 가지런히



〈그림 4〉 송 진중후의 적관·적의제도.
(한국의 복식문화, 1 p. 408)

꿰를 수 놓고 있었다.

『高麗史』 여복지에는 상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색을 알 수 없는데, 이 때는 명에서도 건국 초 정제가 없었다고 보아 송사 여복지에서 이와 동일한 복제를 가졌던 그 명부복을 보면 의와 상은 등색이었고 청색이었으니, 폐슬도 청색이었다고 본다.

대대는 옷 색에 따랐다 하였으므로 의상과 같은 색인 청색이었다고 할 것이다.

혜대는 금구칠이 장식되어 있었고, 뒤에는 수를 드리웠으며 말과 석은 청색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송조의 명부복이었다.⁴⁾

2. 장승상 부인의 복식

장승상 부인은 이웃마을 무릉촌에 사는 재상 부인으로 용모가 아름다운 효녀 심청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한번 만나본다. 부인은 심청이 마음에 들어 자기 수양딸로 삼아 시중들게 하려고 한다.

1) 장승상 부인의 평상복

장승상 부인의 복식 형태는 고려시대 귀부녀들의 전형적인 복식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결혼한 귀부인의 머리모양은 귀천없이 동일하게 머리를 틀어서 붉은색 비단으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꽂았으며 나머지 머리는 뒤로 늘어 뜨렸다. 또한 통일신라로부터 고려에 전승된 귀족, 양반계급 부녀자 예복에는 화관이 있었다.

백저포 안에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평상시에는 포를 벗고 있었다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귀부녀들도 평상시에는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부인의 평상복도 전술한 고려시대 치마, 저고리 차림의 두가지 양식으로 혼재되어 착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치마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는 모습은 일본 大德寺 소장 水月觀音圖⁵⁾(그림 5) 좌측 하단에 공양물을 가지고 가는 여인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모두 뒷모습이 나와 있으며, 우측 여인은 黃色 襦를 花文

3) 아청(鶯靑) : 검은빛을 띤 푸른 빛. 야청(野靑).

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 출판부, 1974), pp. 205-206.

5) 水月觀音圖는 觀音菩薩과 예배를 드리는 선재동자로 구성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작품과 같은 도상의 원류는 돈황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런 도상은 중국 내륙에서도 제작되어 고려에까지 파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본 大德寺 소장품의 제작시기는 14세기 전반기를 약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韓國美術研究所(編), 해설편-高麗時代의 佛畫, (서울: 시공사, 1996), p. 89.



〈그림 5〉 귀부녀복 水月觀音圖.
(고려시대의 불화, p. 156)

이 있는 홍색 치마 위로 입고 있다. 그리고 유에는 고름을 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襦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띠가 없어지고 앞에 배듭단추나 작은 실용성의 고름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여기에도 동정이 달려 있다. 저고리 소매는 좁아지는 경향을 느낄 수 있는데, 치마는 앞에 허리끈이 길게 늘어졌고 치마 폭이나 길이도 다소 줄어든 듯이 보인다.

또 다른 趙胖 부인상(그림 6)이 袍 속에 입고 있는 양식은 裳 위에 襦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짙색 치마를 흰 끈으로 매어 나란히 늘였고, 그 위에 雲文 치마 보다 좀더 진한 짙색 비단저고리를 착용했는데 깃과 수구는 龜文 자색비단을 대고 있다. 지금의 회장저고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은 모습은 하연 부인상(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이때의 저고리에서 특징적인 점은 서민 남자복식에서도 언급했듯이 동정이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려시대에 동정을 달기 시작했으리라고 보는 것은, 저고리의 깃·도련·수구·치마단 등에 둘러져 있던 선이 이때에 이르러 없어졌기 때문이다. 곧 앞 시대까지 있었던 선 대신에 흰색 동정이 달려졌다고 보는 것이다.

袴에 대하여는 『高麗圖經』에서 병사들의 「白苧窮袴」와 부녀자들의 「文綾寬袴」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



〈그림 6〉 조반부인상.
(한국복식문화사, p. 165)



〈그림 7〉 하연부인상.
<http://myhome.naver.com/gold4989375/noname4.html>

다. 『귀부조』에 따르면 귀부녀들의 바지로 문릉생초로 만든 넓은 바지로 生絹으로 안을 받쳤는데 이것은 여유있게 하여 옷이 몸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남자와 같은 포에다 넓은 바지를 입었다고 하는데⁶⁾ 그러면 文綾寬袴가 이렇듯 견직물로

6) 朴春順, “바지 考 : 바지 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 120.

만든 통이 넓은 바지라면 치마 속에 입는 속바지가 아닌, 三國時代처럼 겉옷으로 바지를 착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⁷⁾

치마는 폭을 8폭으로 하여 위에는 잔주름을 수없이 잡아 등글게 입음으로써 중후한 멋을 강조했다. 치마는 또 그 길이가 대단히 길어 걸을 때는 치맛자락을 겨드랑이 밑에 끼고 다녔다고 한다. 치마의 색은 가을과 겨울에는 색이 짙거나 옅은 황색을 많이 입었으며, 홍색은 왕비의 치마색이므로 금제로 되어 있었는데,⁸⁾ 조반 부인상(그림 6)을 통해서 그 복색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고려의 귀부녀들은 백포로 만든 버선을 신고, 사슴가죽으로 만든 履를 신었다.

2) 장승상 부인의 외출복

장승상 부인은 귀부녀복에서 그 양식을 찾을 수 있는데 고려 귀부녀들은 襦袂 위에 백저포를 입었고, 허리에 檄攬나무 문양이 있는 허리 띠(勒巾)를 띠었고, 여기에다 5색의 찬란한 采條로 金鑲을 매어 달고 또 麝香과 같은 향료를 넣는 금냥을 찻는데, 이러한 패물이 많은 것을 귀히 여기고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⁹⁾

또 '손에 부채를 들었다 하더라도 손뼉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흔히 絳囊으로 이를 덮었다.' 하였는데, 『하연 부인상』(그림 7)에서 보이는 포의 붉은 색 소매 끝부분이 이 강낭의 모습으로 추측된다.¹⁰⁾ 하연부인상은 고려말의 모습이기도 하나, 고려 초 역시 당시 송대 귀녀들이 부채를 패용한 것으로 보아 고려 귀부인 역시 손뼉 가리개 대용이나 장식으로 부채를 들고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채는 삼국시대에는 궁중 사람들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 평민들에게 널리 퍼

져 대중화 되었다.¹¹⁾ 또한 여인의 치장도구로서의 거울은¹²⁾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발굴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고려시대의 동경은 우리나라 거울을 고려경으로 부를 만큼 많은 양이 존재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전래의 상황이 정확하지 않나라는 것이다.¹³⁾

고려의 부채는 대체로 중국에서 쓰는 등근 부채(圓扇)가 아니라 접는 부채(摺扇)였다. 고려의 귀족과 문인들은 부채를 무척 애용했다. 情人과 헤어질 때 부채의 겉면에 이별의 시를 써서 건넸으며, 갖가지 그림을 그려 감상하며 부쳤다. 장식도 화려했다. 쥐는 부분에 고달이를 만들어 벽에 걸어들 수 있게 하였다. 고달이에 향수(香籠: 향이 담겨 있는 구멍이라는 뜻. 香囊과 같은 뜻이다)라는 주머니를 달아 향을 넣고 이수시개와 귀이개 같은 용품도 넣어 두었다. 도장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적마다 사용하기도 했다. 어떤 것은 부채 하나에 장식이 몇 개씩이나 달렸다.¹⁴⁾

귀부녀들이 외출시에 旋裙을 착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특히 폭이 넓은 치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旋回할 때에 원형으로 펼쳐지는 아랫자락이 넓은 군을 말하며, 唐代 궁인들에게서 유행하였다고 한다.¹⁵⁾ 이 선군은 여러 겹으로 헤 입는 것을 자랑으로 하였고, 걸치마는 8폭으로 대단히 길어서 보행시에는 겨드랑이 밑에 끼고 다녔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부귀한 집의 처첩들은 치마 한 벌 만드는데 옷감이 7-8필이나 들었다 한다. 또한 외출시에는 몽수라는 것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¹⁶⁾

『高麗史』에는 “...하루는 국검이 보니 한 부인이 盛하게 꾸며 袿裳을 입고 봉우리 길을 따라 내려왔다. 가사는 부인의 盛裝이니 緇縠으로 만들었는데 蒙頭로서 얼굴을 덮는 것이다.”라 하여 여자의 盛裝

7)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8), p. 169.

8) 조효순, 한국인의 옷 (서울: 밀알, 1995), pp. 72-73.

9) 유희경, 김문자, *Op. cit.*, p. 162.

10) 이진영, 고려시대 여자 복식의 고찰, 慶熙大學校 大學院 高風論集 第15輯 (1994), p. 320.

11) 이이화, 한국사이야기④: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 (서울: 한길사, 2001), p. 289.

12) 임효택, 이인숙의 고고학자 23인,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서울: 푸른역사, 2000), p. 143.

13)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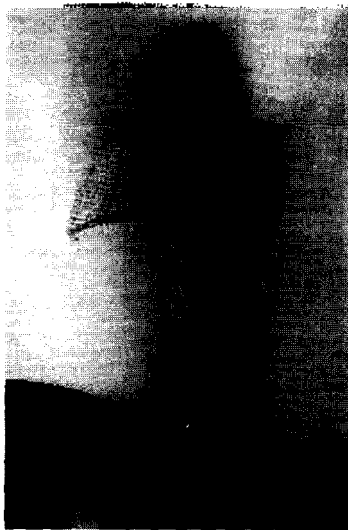
14) 이이화, *Op. cit.*, p. 289.

15) 杉本正年, 동양복장사상고 중세편, 문광희 역 (서울: 경춘사, 1997), p. 401.

16) 유희경, 김문자, *Op. cit.*, pp. 160-168.

으로서 머리와 얼굴을 덮는 검은 옷감으로 만든 가사가 곧 몽두임을 알려주는데, 이 몽두는 몽수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몽수의 기원을 여자들의 일반적인 외출 특히 기마풍속과 관련시켜보는 견해도 있는데,¹⁷⁾ 『高麗圖經』에는 부인의 기마풍속을 보고하고 있다. 즉 “신분을 막론하고 부인의 기마풍속이 있었다.¹⁸⁾ 이것은 당시에 마차와 藍輿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⁹⁾ 벼슬아치 부인이나 귀한 신분의 처인 경우, 그들은 외출할 때 종자가 2-3명 따른다”고 하였다. 검은 비단으로 몽수를 만들어 머리에 썼는데 그 길이가 말의 등을 덮을 정도였다고 하며 그 위에 箒(그림 8)을 착용했다.²⁰⁾

몽수의 구체적 형태에 대하여는 『高麗圖經』권 제 20에 의하면 귀부인의 복식은 길이 8척 정도로 머리



〈그림 8〉 몽수.
(한국복식문화사, p. 161)

에서부터 덮어쓰고 눈과 얼굴을 드러내 놓았으며, 몽수의 길이는 땅끝까지 끌리는 길이였고 외출시에 착용하였다.²¹⁾

3. 수정궁에서 만난 짝부인의 복식

짝부인은 심청의 어머니로 실제로는 죽은 상황이나 소설 속에서는 용궁인 수정궁에 거거하며 용궁에 들어온 심청을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 경우 짝부인은 수정궁에 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려 여인들의 궁중복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궁중복을 나타내고 있는 고려불화는 일본 福井縣에 있는 西福寺 소장 觀經序品變相圖²²⁾ 중의 하나이다. 〈그림 9〉는 왕비와 그 시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왕비는 수구와 깃들레, 도련에 선이 둘러져 있는 담홍색포를 착용하고 있고, 그 밑에는 역시 담홍색의 袴를 길게 끌리도록 하였다. 포 위에는 半袖이고 넓은 수구를 가진 반비계룡을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半臂위에는 袂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명의 侍女像의 복장은 襦를 입고 그 위에 裳을 착용한 차림이다. 襦는 홍색이 3, 녹색이 3, 담홍색이 3사람



〈그림 9〉 왕비, 시녀 觀經序品變相圖.
(고려시대의 불화, p. 116)

17) 홍나영, “여성 쓰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 65.

18) 이진영, *Op. cit.*, p. 315.

19) 유희경, 김문자, *Op. cit.*, p. 161.

20) 이진영, *Op. cit.*, p. 315.

21)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1)* (서울: 경춘사, 1996), p. 453.

22) 觀經變相圖는 인도 마가라 왕국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과 그 구제 과정을 기술한 『觀無量壽經』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화화한 것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한 序品變을 표현한 것이 觀經序品變相圖이다. 西福寺 소장 觀經序品變相圖와 같은 내용으로 두점이 있는데 하나는 충선왕 4년, 즉 1321년의 그림으로 일본 京都의 大恩寺 소장이다. 또 하나는 이 그림의 경우인데, 이것은 연대가 확실치 않은데 문명대학교수는 대은사의 것보다 제작 연대가 이른 것으로 보면 어떨까 한다고 하였다. 김원룡, *韓國의 美7-高麗佛畫*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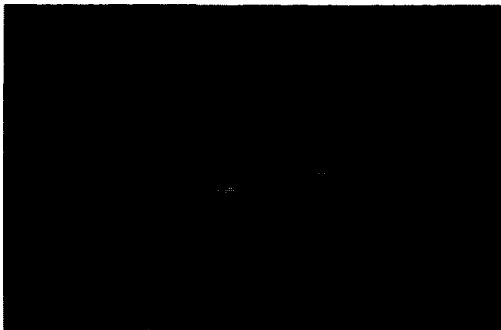
이다. 그 위에 뿔이라고 하기보다 뿔이라고 할 정도로 길고 넓은 치마를 입고 있다. 치마허리와 치마끈 즉 흥덕왕복식금제의 腰襟을 두르고 뒤로 흥색 장식 매듭을 한 紐를 길게 늘이고 있다. 그리고 袂를 두르고 있는데 대부분 남흥색이고 흥색도 있다. 이들의 머리모양은 흥라로 묶어 위로 틀어올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당, 송의 여인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²³⁾

4. 수정궁의 궁녀의 복식

수정궁은 용궁속의 궁이므로 그곳에 기거하는 궁녀는 일반 궁인들과 달리 상상의 인물이라 생각되어 고려불화에 보이는 天女들의 복장으로 기술하였다.

천녀에 대하여는 古墳壁龕나 불탱화, 사경화, 경관화 등과 고묘 출토 棺의 벽면에 그려져 있는 비천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飛天像은 供養物을 손에 들고 있거나 奏樂 大人으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고 있는데, 대개 女子로 고개, 보주식 화관, 天衣를 걸치고 경식, 완식, 천식, 장신구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군의는 天衣와 함께 바람에 길게 휘날리는 것은 『觀經十六觀變相圖』(그림 10)에서 볼 수가 있다. 이들을 통해 高麗女人들의 머리모습, 장신구, 복식들을 다소나마 살펴



〈그림 10〉 선녀부 觀經十六觀變相圖.
(고려시대의 불화, p. 122)

볼 수가 있다.²⁴⁾

5. 뽕덕어미의 복식

1) 뽕덕어미의 평상복

뽕덕어미의 평상복은 고려 서민녀들의 평상복이므로 고려시대 일반 평상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3)

백제의 · 황상은 위에는 公侯貴家로 부터 아래는 민서의 妻妾에 이르기까지 대개 無辨하였다²⁵⁾고 하였으니 백제의 · 황상이 上下 婦女의 通服이었다 하겠다.

이처럼 고려도경에 의하면 삼국시대 이후 부녀자의 일상의복은 白紵를 재료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²⁶⁾ 고려시대는 특히 직조 기술의 발전으로 문저포라는 꽃무늬를 넣어 화려함을 더했는데,²⁷⁾ 꽃무늬는 일반 여자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뿔은 가을과 겨울에는 주로 노란색 치마를 많이 입었으며, 그 색은 질기도 하고 얇기도 하여 上下가 그 제도에 구별이 없었으며, 왕비의 것만은 흥색이었다. 다만 婢妾條에 보면 그들은 걸어 다닐 때 치마를 걸어올리고 다녔다²⁸⁾고 한다.

또한 포에 있어서는 남자에 있어 왕 연복의 백저포나 민서의 그것이 다름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민서층에서도 이를 착용하였으나, 여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 입었는지는 의심스럽다.

『高麗圖經』에서 보더라도 貴婦條에는 남자와 같은 백저포를 입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으나 卑妾條나 賤使條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풍수에 관한 기록에 있어 일을 하는 관계로 아래로 내리지 않고 머리 위로 접어 올려야만 했다면, 서민층 여자들이 일하는데 불편했을 백저포를 상용했으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婢妾條에 관부의 腰, 국관의 妾, 민서의 妾, 잡역을 하는 婢는 복식이 서로 유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저포를 간혹 입기도 하

23) 유희경,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 (육사 육근박물관, 1995), p. 118.

24) *Ibid.*, p. 492.

25) 유희경, 김문자, *Op. cit.*, p. 171.

26) 杉本正年, *Op. cit.*, p. 389.

27) 박기현, *손에 잡히는 고려 이야기* (서울: 늘푸른 소나무, 1997), p. 25.

28)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3), p. 140.

였을 것이나, 늑건에 따른 수식만은 서로 나르고 등차가 있었다고 보아진다.²⁹⁾

두식에 관하여 『高麗圖經』에서는 고려시대에도 다양한 비녀가 있었으며, 고려에 온 다른 나라 사신들도 고려에서는 “부인의 머리는 귀천이 없이 같았으며 머리태를 오른쪽 어깨로 넘겨 아래로 드리웠는데, 붉은 띠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고 한다.³⁰⁾

2) 뺨덕어미의 외출복

『高麗圖經』에 나타난 고려 전기의 여자 복식은 몽수·의·포·대·고·상·선군·강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부인과 서민 여자들의 복식은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고 衣次와 修飾에 의해 구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쓰개는 귀부녀와 마찬가지로 몽수를 썼다. 그러나 婢妾(백성의 妻나 잡역에 종사하는 婢)들은 일을 해야 했으므로 아래로 내리지 않고 머리 정수리에서 접어 올렸다.³¹⁾

의복도 귀부녀와 마찬가지로 치마·저고리에 백저포였으나, 백저포는 일을 할 때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출할 때나 간혹 입었다. 또한 서민들도 백저포에 늑건(勒巾)을 띠었는데, 늑건을 만드는 천의 升數라든가 장식은 귀부녀와 차등이 있었다.³²⁾ 襦의 경우, 겨울에는 솜저고리나 겹저고리로 방한을 하였고, 여름에는 홀저고리로 격삼을 해 입었다. 여름에는 모시가 유행이었다.³³⁾ 그런데 귀부녀들이 치마밑에 입었던 선군도 그들과는 차등을 두었으리라 생각되어 서민의 것은 무지기의 수가 적었으리라 추측된다.

부인은 머리를 묶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나버지는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으로 墮馬髻와 같은 형태이다. 墮馬髻란 말에서 떨어져 있을 때의 여자의 머리모양으로 髻가 밑으로 처진 형태를 말한다. 중국

에서는 李賢이 말하길 “墮馬髻란 한 곳으로 쓸린 모양으로 이런 머리는 부녀자들에게 사랑스런 모습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유행하였다.³⁴⁾

외출시 쓰개는 귀부녀와 마찬가지로 몽수를 썼는데, 『高麗圖經』의 기록에 의하면 가난한 집에서는 봉수를 하지 못했는데,³⁵⁾ 비단 한 필은 은 10냥이나 되었고,³⁶⁾ 부인들이 외출시 썼던 몽수도 이는 그 값이 銀이 한 근과 맞먹어 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禁制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몽수의 값이 상당하여 이를 착용치 못한 빈서녀가 많았음을 알게 하여 주는데, 결국 당시의 몽수는 철저한 内外에의 상징이라기 보다는 여인들의 사치풍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자가 “불면 날 듯, 연기인가 안개인가. 희디 흰 빛, 눈인가 서리인가. 창, 흥, 주, 녹으로 물들여 비단을 만들어 공경사녀들이 얹어 끝제. 바스라 바스라 떨어지며 반짝이네.”라고 노래하였던 것도 단지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니 의복의 색은 단지 시각적 효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별을 의미하였던 것이다.³⁷⁾ 비선도 귀부녀와 마찬가지로 백포를 만들어 신었다. 그러나 신발은 그들과 달리 草履를 신었다.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신었을 것으로 보이는 草履에 대하여는 그 형태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그 모양이 괴이하다³⁸⁾는 기록이 있다. 간혹 牛皮鞋를 신기도 하였다.³⁹⁾

외출복은 평상복과 거의 다름이 없이 평상복을 청결하게 하고 단정히 하여 몽수를 쓰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Ⅲ. 小說 「沈清傳」 女子 登場人物 服飾 考證

29) 유희경, *Op. cit.*, pp. 218-219.

30) 『高麗圖經』 卷20 婦人 賤使

31) 이진영, *Op. cit.*, p. 315, 320.

32) 조효순, *Op. cit.*, p. 73.

33) 박기현, *Op. cit.*, p. 25.

34) 伏候家, 『歷代婦女の 髮飾』 (湖南省博物館(編), 1989).

35) 유송옥, *한국복식사* (서울: 修學社, 1998), pp. 136-137.

36) 한국역사 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② (서울: 정년사, 1997), p. 178.

37) *Ibid.*, pp. 136-137, 178.

38) 『高麗圖經』 卷二十九 供張條 草履.

39) 劉頌玉 著, *Op. cit.*, p. 137.

(고증 1) 심청을 맞던 장승상 부인의 평상복

-머리는 絳羅로 묶어 올렸으며, 옥을 엮어 만든 장식을 엮고, 크기가 다른 옥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다.

금사로 무늬를 직조해 넣은 겨자색의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거드랑이 밑으로 지나는 옷의 여밈을 고정시키기 위해 짧은 고름으로 묶었다. 허리에는 감람나무 무늬가 수놓인 녹색의 넓은 띠를 띠었고, 띠의 아래 부분에는 5색 채조가 매달리고 그 아래에는 금방울이나 금낭 들을 늘어뜨리고 있다. 짧은 허리띠와 같은 색상으로 폭이 넓고, 금사로 무늬가 들어가 있다. 또한 무늬가 수놓아진 비선을 신고 있다.

손에는 손뚝을 가리기 위한 부채를 들고 있는데, 손잡이 부분에는 오색 비단실을 끈 끈과 방울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향낭을 달아 부채질시 향이 퍼지게 되어 있다.

(고증 2)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후 이를 슬피한 장승부인이 심청을 위해 제를 지내준다. 이 때 장승상 부인의 외출복

- 유·상·포를 착용하고, 그 위에 눈만을 내놓고 전체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는 바다에 끌릴 정도로 길이가 긴 흑라로 된 몽수를 쓰고 있다.



<고증 1> 장승상 부인의 평상복.

(고증 3) 용왕에 의해 구해진 심청은 수정궁에서 모친과 상봉케 된다. 그 때의 광씨부인 복식

광씨 부인의 복식은 의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고 그 길에 포블 착용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두식은 絳羅로 묶어 올렸으며, 구슬 장식을 하고 있다. 세환식 금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화려한 주보식에 녹



<고증 2> 장승상 부인의 외출복.



<고증 3> 수정궁에서 광씨부인 복식.

색의 잔주름이 들어간 치마에 청색에 비단에 금사로 무늬가 놓이고, 붉은 색의 수가 놓인 襖이 들어간 광수 포를 착용하고 있다. 어깨에는 암록색 바탕에 금사로 무늬가 들어간 袂를 두르고 있다.

(고종 4) 수정궁에 있는 궁녀복

- 궁에 있는 궁녀는 불화 속에 등장하는 선녀를 묘사한 것으로,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자연스런 형태로 긴 머리를 날리며 있다.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의복은 소매가 없는 형태로 올리브 그린색 천을 몸에 두르고 있는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금사 무늬가 들어가 있는 꽃잎 모양의 자락을 여러 장 덧댄 홍색 치마를 입고 있으며, 가슴에서 허리까지 주름을 잡은 상의와 가슴 가운데 부분에서는 素色의 날리는 천을 붙들고 있다. 어깨에는 衣와 같은 색의 袂를 날리며 드리우고 있다.

(고종 5) 뽕덕어미의 복식

-머리를 백저 끈으로 묶어 올렸다. 그리고, 짧은 백저의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황색의 상을 착용하고 그 위를 늑건으로 여며 입었다.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다.

(고종 6) 결혼식을 치르는 천자와 왕후가 된 심청의 복식

- 왕의 모습은 면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심청의 황

후복은 송의 격관·적의 제도를 본 따 표현하였다.

왕은 청색의 구류면에 수구와 복선에 금문이 수놓인 홍색의 선이 돌린 청색의 구장복에 청색 상, 백색 중단, 붉은색 폐술을 우측 허리에서 아래로 늘어뜨리고, 허리에는 흰색 대대를 띠고, 손에는 홀을 들고 있으며, 청색의 신발을 신고 있다.

심청은 9등분하여 가지런히 꿩을 수놓았으며 깃



<고종 5> 뽕덕어미의 복식.



<고종 4> 수정궁에 있는 궁녀복.



<고종 6> 결혼식을 치르는 천자와 왕후가 된 심청의 복식.

〈표 1〉 심청전 여자복식 복식 고증

고증	복식 명칭	두식	의복	장신구
1	장승상 부인 평상복	강라로 올린 머리 옥장식	거자색 襦 5색 채조 금방울, 금낭, 버선	부채, 향낭
2	장승상 부인 외출복	몽수	유, 상, 포	
3	곽씨부인복	강라로 올린머리	유 상(녹색, 주름) 포(청색, 금사무늬) 표(암록색, 금사무늬)	세환식 귀거리
4	궁녀복	화관 푼머리	의(올리브 그린) 소색 앞 장식천 상(홍색, 금사무늬) 표(올리브 그린, 금사무늬)	목걸이
5	뽕덕어미복	백저 올린머리	백저의 향상 늑건	
6	친자복 황후십청복	닌류관 적관	면복 적의	

과 폐슬의 단에는 용문과 구름무늬를 수놓은 청색에 홍라로 짠 한 적의를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각색의 보석이 박혀있는 보주식 화관에 이마에 진주가 일자로 박히고 어깨 부분에는 여러 개의 진주가 매달린 관을 쓰고, 진주를 늘어뜨린 귀걸이를 하고 있다. 적의 안에는 홍색의 상에 청색의 신을 신고 있다.

IV. 結 論

고려 여자복식은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없어, 복식의 정확한 형태를 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고려전기의 문헌인 『高麗圖經』과 더불어 주변국의 사료를 통한 유추와 더불어 불화 속에 나타난 공양인들의 복식과 당시 초상화 등을 통하여 그 대략의 형태와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다.

심청전에 등장하는 여자들의 복식을 고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승상 부인의 평상복은 머리는 絳羅로 묶어 올렸으며, 옥장식을 얹고, 옥 목걸이를 하고 있다. 짧은 고름이 달린 금사로 무늬 거자색의 의를 착용하고 있는데, 허리에는 감람나무 무늬가 수놓인 녹

색의 넓은 띠를 띠었고, 띠의 아래 부분에는 5색 채조가 매달리고 그 아래에는 금방울이나 금낭 등을 늘어뜨리고 있다. 襖은 허리띠와 같은 색상으로 폭이 넓고, 금사로 무늬가 들어가 있다. 또한 무늬가 수놓아진 버선을 신고 있다.

장승상 부인의 외출복은 유·상·포를 착용하고, 그 위에 눈만을 내놓고 전체를 뒤집어쓰게 되어 있는 바닥에 깔릴 정도로 길이가 긴 후라로 된 몽수를 쓰고 있다.

심청의 모친인 곽씨부인 복식은 의를 입고 그 위에 치마를 입고 그 곁에 포를 착용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두식은 絳羅로 묶어 올렸으며, 구슬 장식을 하고 있다. 세환식 금귀고리를 착용하고 있다. 고려불화의 공양여인상에서와 같이 화려한 주보식에 녹색의 잔주름이 들어간 치마에 청색에 비단에 금사로 무늬가 놓이고, 붉은 색의 수가 놓인 띠가 들어간 광수 포를 착용하고 있다.

어깨에는 암록색 바탕에 금사로 무늬가 들어간 袂를 두르고 손에는 심청의 효심을 상징하는 연꽃을 들고 있다.

수정궁에 있는 궁녀복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자연스런 형태로 긴 머리를 날리며 있다. 목에는 굵은 목걸이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의복은 소매가 없는 형태로 올라브 그린색 천을 몸에 누르고 있는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금사 무늬가 들어가 있는 꽃잎 모양의 자락을 여러 장 덧댄 홍색 치마를 입고 있으며, 가슴에서 허리까지 주름을 잡은 상의와 가슴 가운데 부분에서는 素色의 날리는 천을 붙들고 있다. 어깨에는 衣와 같은 색의 襖을 날리며 드리우고 있다.

뺨덕어미의 복식은 머리를 백저 끈으로 묶어 올렸다. 짧은 백저의를 먼저 착용하고 그 위에 황색의 상을 착용하고 그 위를 녹색으로 여미 입었다.

결혼식을 치르는 천자와 왕후가 된 심정의 복식은 왕의 모습은 고려불화에 번복을 착용하고 있는 왕의 모습에서 따왔으며, 심정의 황후복은 송의 적관·적의 제도를 본 따 표현하였다.

이상으로 『심정전』에 등장하는 여자 인물들을 통해 관보, 의복, 신발, 장신구 등에 이르기까지 각각 재현해 봄으로써 남자복식에 이어 복식자료가 미비한 고려시대 전 계층의 전체적인 복식 형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으며, 실제 작품제작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志卷 26.
 『宣和奉使 高麗圖經』 卷十八.
 고전문화실 편 (1997). *한국고전소설해제집 上*, 서울: 보고사.
 권영숙, 이주영, 장현주 (199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성보문화

재연구원.
 김원룡외 (1992). *韓國의 美7-高麗佛畫*, 서울: 중앙일보사.
 박기현 (1997). *손에 잡히는 고려 이야기*, 서울: 늘푸른 소나무.
 박春順 (1991). “바지考 : 바지 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백영자 (1993).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杉本正年 (1997). *동양복장사론고 중재판*. 문광회 역, 서울: 경춘사.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修學社.
 유희경 (1974).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유희경 (1995). “高麗服飾樣式-여자복식을 중심으로”. *학예지 4*, 육사 육군박물관.
 유희경, 김문자 (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이이화 (2001). *한국사이야기④ :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 서울: 한길사.
 이진영 (1994). “고려시대 여자 복식의 고찰”. *慶熙大學校 大學院 高麗論集 第15輯*.
 임명미 (1996). *한국의 복식문화(I)*, 서울: 경춘사.
 임효택, 이인숙 외 고고학자 23인 (2000). *유물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서울: 푸른역사.
 조효순 (1995). *한국인의 옷*, 서울: 밀알.
 韓國美術研究所 編 (1996). *해설편-高麗時代의 佛畫*, 서울: 시공사.
 한국역사 연구회 (1997).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②*, 서울: 청년사.
 홍나영 (1986). “여성 쓰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